광주 불교계 외국인 스님 주지로 첫 취임

길상사, 9월 21일 주지 명선 스님 취임법회

스리랑카서 12세에 출가한 뒤
2011년 韓서 출가해 수행정진
은사 도제 스님 등 취임 축하
명선 스님 "다문화 사찰로 발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길상사 주지로 취임한 명선 스님(사진 오른쪽)이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사진 가운데), 은사인 도제 스님(사진 왼쪽)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광주 광산지역의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의 안식처인 길상사 주지에 스리랑카 출신 명선 스님이 취임했다. 광주 지역 사찰에 외국인 주지 스님이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길상사는 9월 21일 대웅전에서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과 은사인 보은사 주지 도제 스님, 총무경상 스님, 원각사 도안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만달라·수담마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백남송 보은사 신도회장, 최창인 아시아밝음공동체 108장학회장, 이영순 전 광주광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신도 15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인사말, 축사, 법어, 꽃다발 증정, 축가,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취임사에서 "길상사를 창건한 현고 스님과 은사 도제 스님의 뜻을 이어 다문화 사찰이라는 새로운 원력을 세워 불사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국적과 문화, 언어를 넘어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수행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도량으로 길상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선 스님은 12세에 스리랑카에서 출가해 켈라니야대학교 불교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11년 한국에서 도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송광사 승가대학, 동국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 법련사, 심곡사 등에서 소임을 맡았다. 또한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상담·통역·법문 활동을 펼치며 지역 불자와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을 이끌어 왔다.


광주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현고 스님은 법어에서 "명선 스님의 원력은 일불제자로 세계일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더 넓은 도량 마련에도 뜻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도제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하며 인연을 맺은 명선 스님이 한국에서 다시 출가해 수행과 학문을 이어 왔다"며 "추운 한국 기후 속에서도 심리상담, 사회복지, 보육 등 다양한 공부와 정진을 이어 온 만큼 길상사가 다문화 가족들의 쉼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남송 보은사 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명선 스님의 주지 취임은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길상사가 다문화 가족들의 쉼터이자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법회에서는 명선 스님이 현고·도제 스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며 불은과 원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전주 시민들 '선명상' 매력에 빠지다

조계종, 9월 2일 서고사서
'전주 선명상축제' 개최해
사부대중 200여 명 동참
심주목걸이 등 체험 '다채'


전주 선명상축제에서 선명상 앰버서더 이수정 강사가 싱잉볼 명상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1일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에서 2025국제선명상축제 지역행사인 '전주 선명상축제'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불자와 인근 부대 군장병, 관내 베트남 출신 청년 등 200여 명이 함께해 선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개회식에서 서고사 주지 해안 스님은 "서로의 눈빛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자 함께 나누는 고요함이 행복"이라며 "이 자리에서 피어난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래 머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축사에서 "명상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이 순간,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에 이미 깨달음이 있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요한 안락과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악그룹 '아퀴'의 전통 국악 축하공연에 이어 선명상 앰버서더 이수정 강사의 선명상 콘서트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사전행사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총 5개 코스로 운영된 프로그램 가운데 본인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 명상을 체험했다.

극락보전에서는 전통 국악의 울림과 호흡을 결합한 '국악명상'이 펼쳐졌다. 명상센터 2층 소강의실에서는 체험형 명상이 이어졌다. '아로마테라피 명상'은 천연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통해 감각을 깨우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호흡명상으로 구성됐다.

'다도명상'에서는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일련의 동작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명상 훈련이 진행됐다.

서고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청년경제인불자회(회장 박용석)는 종무소 앞마당에서 '심주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 봉은사에서 막을 올린 2025 국제선명상축제는 오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량사 괘불도 '국보' 지정…국민에 기쁨"

국가유산청, 부여 무량사에 국보 지정서 전달

정덕 스님 "보존 전승 최선"
제13회 산사음악회도 개최

허민 청장이 주지 정덕 스님에게 국보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의 국보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는 9월 20일 무량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국보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6일 국보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높이가 14m에 달하는 초대형 불화로 법경·혜윤·인학·희상 스님 등 화승들이 1627년 제작했다. 화기에 '미륵(彌勒)'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 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보다 제작 시기가 일러 유사한 도상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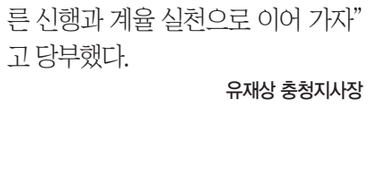
정덕 스님은 "사찰과 지역 불자, 군민들이 함께 지켜 온 불화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모두의 기쁨이며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 괘불의 보존·관리 및 활용·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태진 스님, 서각사 주지 불일 스님, 관촉사 주지 종봉 스님을 비롯해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박수현 국회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김영춘 부여군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당진 영탑사 신중도' 41년 만에 환지본처

9월 20일 비로전서 봉안 법회
설정 스님 "도량 수호 상징"


설정 스님이 신중도에 점안 의식을 진행하다.

41년 전 도난당해 소재가 불분명했던 당진 영탑사 신중도가 환지본처했다.

당진 영탑사(주지 원정 스님)는 9월 20일 비로전에서 신중도 환수 봉안 및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설정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회주 수암 스님, 주지 원정 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정혜사 영도 스님, 황침현 당진시 부시장, 영탑사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신중도 환수와 봉안을 축하했다.

영탑사 신중도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제석천룡도 계열의 불화로, 섬세한 인물 표현과 전통 불화의 색감이 잘 발현된 것이 특징이다. 1984년 약사전 해체·보수 과정에서 도난당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탑사 측이 올해 봄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침내 영탑사로 돌아온 신중도는 최근 보존 처리를 마치고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보물)이 모셔진 비로전에 함께 봉안됐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원정 스님은 환수 경위를 설명하며 "이번 봉안은 영탑사 사부대중의 정성은 물론, 전국 각지 신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함께한 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점안의식은 설정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증명 아래 점필의식과 축원, 법문 등의 순으로 봉행됐다.

설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신중도를 새롭게 봉안한 것을 계기로 올바른 신행과 계율 실천으로 이어 가자"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 개금불사 회향

9월 20일, 2년간 불사 진행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9월 20일 극락보전에서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좌상 개금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아미타여래좌상(보물)은 1607년 조선 선조대왕 때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된 성보문화유산이다. 2022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의 정밀 진단 결과 내부 소조층의 균열과 개금층 박락 현상이 확인되면서 보존 처리가 불가피했다. 이에 2023년 주지 무공 스님의 발원으로 개금불사가 본격 추진됐다.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아미타여래좌상이 다시 황금빛 옷을 입고 중생 앞에 서게 된 것은 불자들의 정성과 신심이 모아진 원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백양사가 더욱 신심을 돈독히 하고,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데 함께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수륙무차평등대재·산사음악회

9월 20~21일, 괘불도 점안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수륙무차평등대재와 삼신삼세 괘불도 봉안법회, 제17회 선운문화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첫째 날인 20일에는 시련, 대령, 사자단 의식, 삼신삼세괘불도 점안이 이뤄졌으며 둘째 날인 21일에는 중단의식 상단권공의식과 관욕의식, 하단의식과 봉송 등으로 봉행됐다.

이번에 점안된 괘불도는 3폭의 삼신삼세불화형식을 취하고 있는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를 모본으로 제작됐다. 주지 경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선운사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550여 년 국가와 왕실, 만백성의 안녕을 발원했던 선운사수륙대재의 복원과 함께 삼신삼세불괘불의 조성을 발원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상대 불교동아리 연화회, 3주년 법회

9월 22일, 가좌캠 교양관서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불교동아리 '연화회(회장 천성하)'가 창립 3주년을 맞아 9월 22일 가좌캠퍼스 교양관에서 개강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담산 스님과 지도 교수, 동문, 재학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천성하 연화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동아리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담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외부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힘을 키워 삶의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하는 종교"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화회는 2022년 창립 이후 정기 법회, 템플스테이, 불교 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이어 오며 현재 10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3기 개강

9월 16일, 개강법회 봉행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원장 환명 스님)은 9월 16일 경남교구 종무원 3층 법당에서 제3기 개강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교구 스님들과 3기 수강생들이 참석해 염불 수행 전통을 계승하는 교육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교육원장 환명 스님은 환영사에서 "염불은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을 잇는 가장 원만한 수행법"이라며 "이번 3기 과정에 동참한 수강생들이 정진을 통해 신행과 삶에 큰 원력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3기 교육은 경전반과 의식반으로 운영되며, 염불에 관심 있는 출·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학기는 2026년 3월 개강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10월, 지리산 화엄사는 문화로 물든다

10월 10~12일 화엄문화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내 일원에서 제21회 화엄문화제를 봉행한다.

'바람이 물을 스칠 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화엄문화제는 △故 차일혁 경무관 67주기 추모재(10월 10일) △화엄사 영산괘불탱 괘불재(10월 10일) △제5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회(10월 11일) △화엄음악제(10월 11일) △제2회 지리산대화엄사 구례군 라인댄스 동호인대회(10월 12일) △제5회 어머니길 걷기대회(10월 12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우석 스님은 "1500년 역사를 지닌 화엄사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첫 해의 축제"라며 "지역 경제·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